

1995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부진해지고 있다. 이는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수급 변화에 의한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제품의 미흡한 수출 경쟁력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의 경쟁력을 보면 가격 경쟁력이 열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마케팅, 기술 서비스 등 비가격 경쟁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세계 시장에서는 개도국과 산유국의 설비 신증설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요인이 많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995년 하반기 이후 수출 부진과 배경

석

유화학 제품은 불과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생산 능력이 급증되면서 일부 특수 그레이트 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을 수출하게 되었고, 3번째 큰 수출 주종품목이 되었다. 1995년 실적으로 볼 때 석유화학 제품은 전체 수출액의 4.6%를 접하는 57억 6,000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그러나 1995년 하반기부터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그 증가세가 크게 꺾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출 부진은 근본적으로 주력 수출 시장에서의 수출 감소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의 주력 수출 시장은 동남아 시장과 중국 시장으로서 이들 시장으로의 수출이 각각 전체 수출의 12.2%, 32.9%(1995년 기

준)를 차지하고 있다. 對동남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은 1994년 전년 대비 23.7%, 1995년 상반기에 56.6%이던 것이 1995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7%, 1996년 상반기에는 -5.7%로 둔화되었다. 對중국 수출 증가율 역시 1994년 54.6%, 1995년 상반기에 135.5%에 이르던 것이 1995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65.5%, 1996년 상반기에는 -3.7%로 둔화되었다.

이와 같이 주력 시장에서 수출이 부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해당 시장의 수급 변화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낮은 수출 경쟁력에 있다. 1995년 하반기 이후 對중국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對중국 수출이 부진했던 것은 물론 시장 특성상 계절적인 비수기(5~9월)가 끼었던 이유

〈표 1〉 석유화학 제품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1994	1995		1996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총수출	3,813.8 (32.4)	2,942.2 (88.6)	2,816.4 (25.0)	2,662.3 (-9.5)
중국	975.8 (54.6)	947.8 (135.5)	949.4 (65.5)	912.8 (-3.7)
아세안	542.1 (23.7)	361.1 (56.6)	340.1 (8.7)	336.3 (-5.7)

자료: 무역협회.

주: () 내는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

도 있다. 이보다는 미국 및 유럽산 제품의 수입, 중국내 부정 부패 척결에 따른 수입 통관 절차 강화 등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산 및 유럽산 제품에 비해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열위에 있음을 의미하고, 정상 통관시 우리 제품은 현지 생산 제품에 비해 경쟁 열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의 수출 증대는 국산 제품의 경쟁력 우위에 따른 것이었다기 보다는 국내 업체들의 공급 능력 확대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에 의존해왔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유화 제품의 경쟁력 열위 실상

과연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의 국제 경쟁력은 어떤 수준에 있는가?

먼저 가격 경쟁력을 보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다소 우위에 있으나 미국, 유럽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서는 열위에 있다. 에틸렌 제조 원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제조 원가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서구, 일본, 중국 등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이지만, 에탄을 사용하는 미국, 캐나다, 사우디 등에 비해서는 높다.

최근에는 나프타 가격이 1992년 7월 이후 최고 가격인 톤당 200 달러를 돌파하면서 연평균 가격이 톤당 180 달러에 이르고 있어서, 에탄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 중동국 등에 비하여 가격 열위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표 2〉 국별 에틸렌 제조 원가 비교

(단위: 달러/MT)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중국
사용 원료	에탄		나프타		
제조 원가	227.8	277.1	501.4	389.3	542.8
(한국=100)	71.4	71.2	128.8	100.0	139.4

자료: Chem Systems, 1994. 9.

가격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경제 창출력도 크게 낮다. 그동안의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해 업체들의 단위 공장당 설비 규모가 확대되어왔으나 아직 경쟁국이나 선진국 업체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

에틸렌 단위 공장당 설비 규모는 1987년의 연산 25만 톤에서 1992년에 41만 톤으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의 51만 톤이나 대만의 85만 톤에 비해 작을 뿐 아니라 M&A를 통해 규모 확대에 성공한 선진국 업체들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제품의 품질 수준은 최근에 신중설된 설비에 의해 생산되고 있어서 선진국 제품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범용 제품의 생산 기술을 제외한 신제품 개발, 촉매, 중합 반응 및 공정 개발 등 핵심 기술은 선진국의 40~60% 수준으로 미국에 비해 5년이라는 기술 격차가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 공정 기술을 도입하여 범용 제품을 위주로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영업력이나 현지 기술 서비스 등 여타 비가격 경쟁력도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가격 경쟁력에서도 품질을 제외한 기술,

마케팅 등 대부분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경쟁 열위를 보이고 있다.

유화 제품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 전망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은 향후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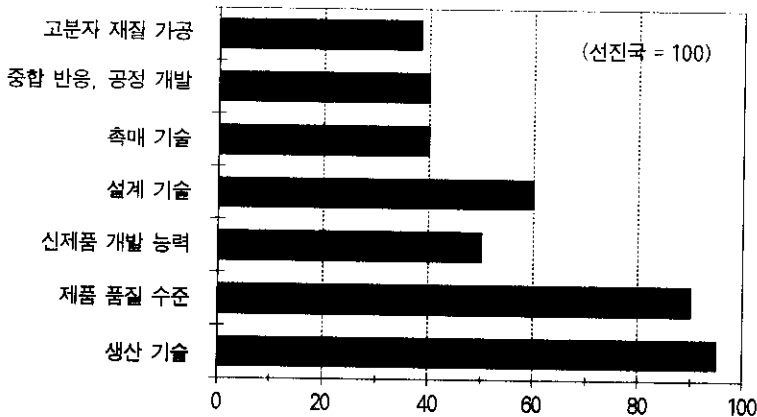
중국 시장에서 현지 달러의 재고 불량 소진, 연말 수출 경기에 따른 수입 수요 증대, 유럽이나 미국 제품의 유입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이 단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이로 인해 최근의 수출 부진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좀 멀리 보면 세계 시장 상황의 변화나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국가들이 수입 대체를 목적으로 자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고, 기타 개도국과 산유국들이 수입 대체와 수출 산업화 차원에

서 설비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세계 석유화학 시장에서는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1998년에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서 벗어나 수급 균형 상태로 전환되고, 2000년에는 완전 자급뿐만 아니라 수출 여력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경쟁 상대로 부각될 전망이다.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환경 보호 강화, 고정비 부담 증대 등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에 확실히되고 있는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 협약의 특별 의무 조항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200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위해 탄소세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에너지 원단위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수

〈그림〉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기술



〈표 3〉 아세안 에틸렌 수급 전망

(단위: 천 톤)

	1995	1998	2000
수요	1,815	3,335	4,255
공급	1,520	3,380	4,405
과부족	-295	45	150

자료: TECNON, 1994.

주: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4개국 대상.

밖에 없다.

여기다가 환경부는 현재 석유화학 업체에 판매액의 0.7%를 부과되고 있는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을 1996년에 5.3%, 2000년 이후에는 9.3%로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 이 역시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투자 자유화를 기점으로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은 고정비 부담이 늘면서 가격 경쟁력의 약화가 초래될 것이다.

주요 과제

이와 같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면, 석유화학 제품은 지속적인 수출이나 수출 주력 품목으로 계속 자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업계 모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가격 경쟁력의 유지 내지는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SOC의 확충과 물류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물류 비용을 저하시켜야 된다. 나프타 등 기

초 원료유에 대한 현행 관세율 3%(할당 관세)도 선진국이나 경쟁국처럼 무세화 또는 저세율화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막대한 비용 부담이 될 폐기물 처리 부담금 인상 방안도 재고되어야 한다.

기업 측면에서도 가격 경쟁력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업체들간의 무분별한 설비 투자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성숙기에 접어든 범용 제품 위주의 생산 구조에서 고기능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프타의 자급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특정 분야에서 수익 중시 경영체제, 기술 완전 자립, 절대 우위력 확보를 통해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거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연구 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신기술 개발 나아가서는 기술 자립화해야 한다. 또한 내수 시장만을 대상으로 종합 화학형을 지향하기 보다는 성장성을 가지면서 경쟁 우위도 확보할 수 있는 중핵 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이 분야에 경영 자원을 집중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 대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국내 업체나 선진국 업체와 사업 통·폐합 또는 상호 교환 등 전략적 제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